

신춘인터뷰

평화민주당 부총재 박영숙 “소리만
안정된 사회일순

안난다고 없습니다"

제일 야당의 부총재로서 정치 일선에서 일하는 박영숙 평민당 부총재.

수수한 얼굴 가득히 넘쳐 흐르는 온화함과 온 몸에 스며든 한국여성의 곳곳함을 간직하고 있는 그는 국정의 전반적인 문제와 더불어 여성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불평등 문제와 여성의 인권문제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

특히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신매매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 여성지도자로서 진실한 인간애로 다가오는 참다운 평화를 찾고자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먼저 한 가정의 아내로서 가정은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궁금합니다.

● 저희 집은 저와 남편(안병무)과 채권(대학3년)이 이렇게 세 식구입니다. 식구는 적지만 우리 집의 생활패턴은 손님이 많은 집입니다.

제가 정계에 진출하기 전에는 자원 활동을 하면서 데모도 하고 여성단체의 일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소모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가사가 우선이었기에 가사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내 돈을 쓰면서 했기에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정계에 뛰어 드니까 공인으로서 책임을 우선으로 느껴야 하는 책임 문제가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사에는 전혀 시간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점수로 친다면 가사 점수는 일점도 받을 수 없을거예요.

—산업화 이후 한국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출과 더불어 모성보호, 근로여성의 지위향상, 복지증진, 남녀고용 평등법 등 제도적인 선행문제와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그 지위와 역할을 다 하고자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 지난번 국회 때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재 행정부에 여성 참여율이 2%인 것을 고려해서 90년대에는 10%로 2,000년대에는 15%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회의 결과를 발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전 국무총리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러한 노력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했어요.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 주듯이 사실 참여는 부진하지요. 일반적으로 2%라고 하지만 부분별로는 더욱 부진합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299명 중 전국구만 단지 6명이고 지역구는 한명도 없으니 여성의 참여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지금까지처럼 미진 미미할 수도 없거니와 문화와 역사의 측면에서 볼 때도 여성의 참여를 억제한다면 인간을 위한다든지 생명을 위한다든지 하는 그런 바람직한 사회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여성의

제가 전에 짧은 기간 동안 여성운동을 하면서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도나 행정 내용을 살펴본 결과로는 제도와 현실에 괴리가 있어서 제도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강간을 당해 이를 제소하고자 해도 증거가 불충분해 강간을 당한 쪽이 대부분 패소하거나 오히려 뒤집혀 무고죄로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여는 계속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 확대됨에 있어서 지금 당장 문호를 개방해도 무방하나 부문에 따라서는 참여만 시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여한 사람이 그 자리에 합당한 공헌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준비가 아직은 되어있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 질을 높이는 노력, 즉 여성에게 훈련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준비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짧은 기간 동안 여성운동을 하면서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도나 행정 내용을 살펴본 결과로는 제도와 현실에 괴리가 있어서 제도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준 것은 아니나 우선 제도개혁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30년 동안 여성의 숙원이던 가족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남녀고용평등법은 지난 12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졸속하게 통과시켰는데 이 법의 가장 키포인트인 동일 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것을 보완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법들이 노동위나 법사위에서 심의 중에 있어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여성에 관련된 법률안 등이 우리 당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여성은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신매매라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사회적 폭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신매매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요?

● 민생치안문제, 즉 인신매매 강

력범죄 성폭행은 사회적문제로 부각되기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향락산업이 급팽창해 가면서 매매춘행위가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으로 양으로 양성화된 것도 있고 또 음성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일로에 있다는 것과 향락산업에 투입되는 대기업들의 유흥비조의 공비가 막대하다는 것을 알아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고서 어떻게 하면 매매춘행위를 최소화, 감소화시키고 또 그 길 밖에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미약한 여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 중간 착취자들에게 철퇴를 가하면서 미약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까하는 법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사회문제가 되면서 크게 문제시되고있어 지난번에 대책회의가 열려 인신매매, 성폭행의 근절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는데 거기서 한양대학교 심영희 교수가 규정을 참 잘 내렸어요. ‘성범죄 성폭행이란 것은 도덕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범죄이고 성범죄가 아니라 폭력범죄’라고 규정을 내렸던 것이 중요한 요점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 다든지 여성의 성은 착취해도 된다는 그러한 것은 인류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생겼다고는 하던데, 아마 우리 사회에서는 왜정시대 때의 정신대 문제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잖을까요? 또 해방이후로 기생관광이란 것이 생긴 것은 새로운 정신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아뭏든 정부정책에 편승하여 향락산업이 대기업화 되어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강제

로 부녀자를 약취해 간다는 것은 수요 공급이 맞지 않은데서 생긴 것이겠죠. 물론 외국의 군대가 있고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에 매매춘행위의 근절이 힘들다고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인신매매 성폭행 문제는 그 선을 넘어선 것 같아요.

사실 서독같은 나라에서는 매매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돈을 버는데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물질만능풍조와 거기다가 국가마저도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나라의 자손을 존속시켜야 될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서 팔아먹는 기생관광도 불사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향락산업을 팽창시키면서

사적으로 정신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맥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관청의 비호를 법에 제소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심지어 강간을 당한 경우 이를 제소하고자해도 강간당시의 무슨 사진을 찍어 놓았다면 입증될 수 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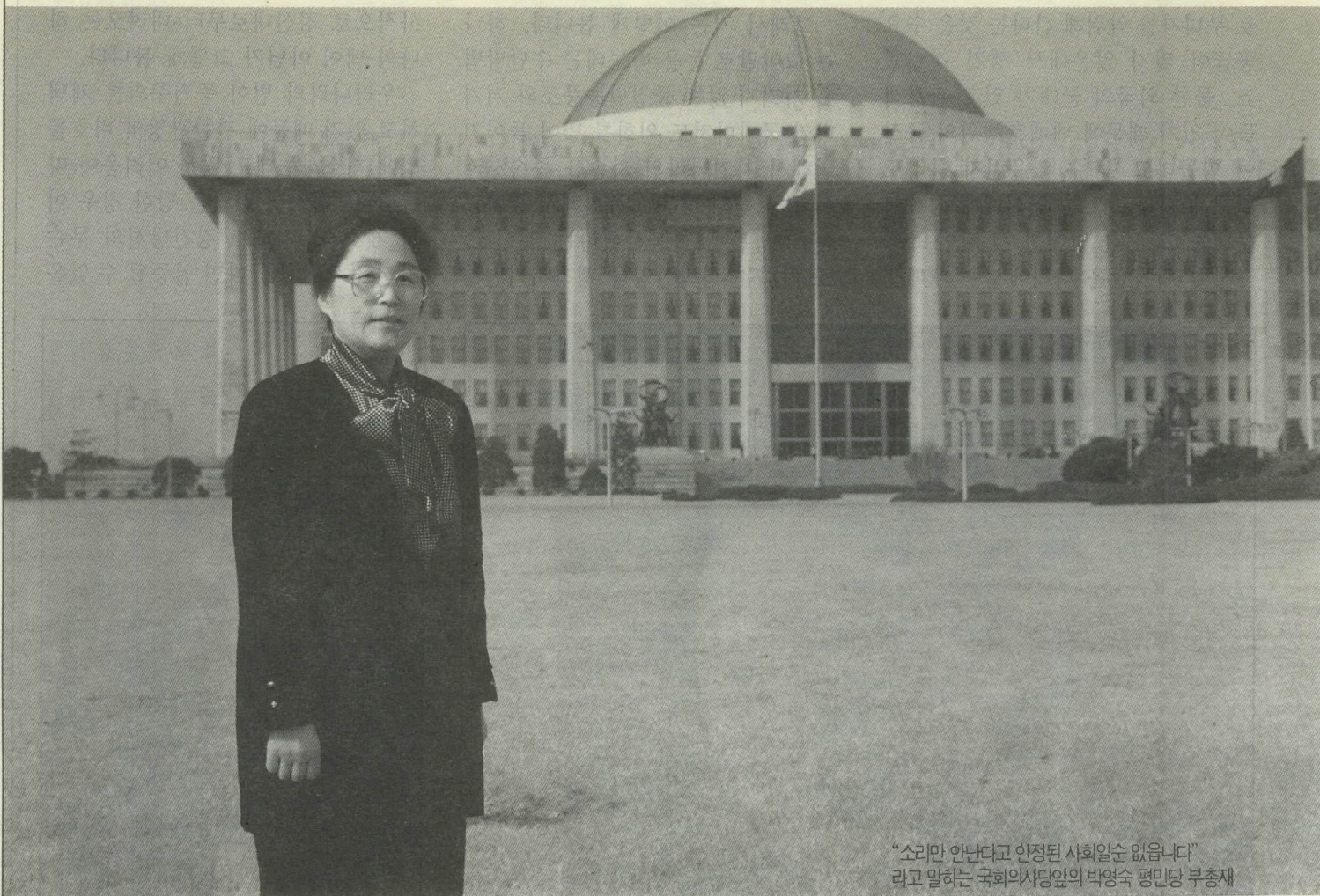
을 점차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외국 군대가 주둔되어 있는데는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극소화해서 매춘여성들에게 노조결성권을 주어서 자기 자치력도 키우면서 자기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형태로는 금지를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관광진흥법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아져요.

부수적으로 부패된 독재정권이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희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 그야말로 타락한 공권력이 정권유지 차원에서 성고문이라는 수단까지 동원해서 여성의 성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그런 패턴에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역



정도로 너무 힘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강간을 당한 쪽이 대부분의 경우 패소하거나 오히려 뒤집혀 무고죄로 당하는 경우가 있죠.

이번에 대구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대구의 모파출소에서 다방여자가 두 경찰관에 의해 윤간을 당했죠. 물론 대학을 다니는 어떤 규수가 그랬다면 사회적 공분을 일



“소리만 안한다고 인정된 사회일순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국회의사당앞의 박영숙 평민당 부총재

사실 공권력의 비호없이 선향락산업이 절대로 클 수 없지요 왜냐하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공공연하게 성행할 수 있겠습니까?

으켰을텐데, 다방여자나 또 무슨 직업여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괜찮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여자는 용감하게 고소를 했었죠. 그랬더니 수사는 오랫동안 끌다가 이 여자가 남자경험이 3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 한사람이 이혼을 했는데도 법적으로 처리를 안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는 오히려 이 여자를 간통죄로 고소해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 틈에 경찰들은 자기네들은 무고하다고 무고죄로 뒤집어 씌워서 고소를 했던 이 여자가 오히려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여성이 강간을 당해도 입증해내지 못하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향락산업에는 경찰이 주인이거나 아니면 방조를 해주지않았느냐 라는 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처단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런 법이 가지는 맹점 때문이지요. 사실 공권력의 비호없이 향락산업이 절대로 클 수 없지요. 왜냐하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공공연하게 성행할 수 있습니까?

결국 공권력은 제자리를 찾아야겠지요. 그리고 윤락행위 방지법에 대한 재검토와 매춘관광은 즉각 중지되어야 하며 현재 우리 당에 설치되어있는 평민의 여성다이알((02)783-3401)처럼 민간단체의 신고센터를 개설해야겠지요.

—여성들 간에 있어서도 기층 여성이나 상류층 여성들 간에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여성계층 간의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야 제가 말하기 전에 직감적으로도 위화감이 있음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은 일단 사회전체가 책임져야겠지만 여성운동을 하는 여성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져요. 지금까지 여성운동이라고 한다면 혜택 받은 사람들이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권리신장에만 관심을 가졌지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해방을 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성인간군 전체의 해방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기층여성이 함께 인간으로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데에 관심이 부족했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전체의 책임도 있지만 여성운동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0년 대에 종교계를 중심으로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여성운동계에도 새로운 흐름이 생기고 새로운 운동체가 생겼죠. 기층여성과 더불어 인간해방의 일환으로서 여성해방운동, 그 여성해방이 없이는 인간해방이 되지않는다는 그런 전제 밑에서 기층여성 전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여성운동이 생겼다는 것은 굉장하고 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운동을 하는 분들이 그런 것을 다 알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인간해방운동에 있어서나 여성해방운동에 있어서나 이 기층인간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즉 성차별문제, 저임금, 해직자문제 등 수난당한 기층여성들의 문제에 개입하려면 자기 몸을 깎아야 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으며 기득

소비자 운동은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에서 한단계 더 넘어서 가격문제, 물건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것, 생산된 물건이 인체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 근본적인 부분에 까지 관심을 못갖는 소비자 운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 여성들이 그런 것을 감수해 낼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5공화국에선 불법시 당했던 그러한 인간해방운동 차원의 여성운동체가 89년에 들어서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햇빛을 보게되었다는 것은 여성운동에 큰 서광으로 저는 간주합니다.

—여성운동과 더불어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소비자 운동의 한계나 모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소비자 운동도 여러 갈래가 있고 모든 운동체가 그렇듯이 소비자 단체가 가지고 있는 목표도 다양하거든요. 또 세워둔 목표가 방대하기 때문에 다 성취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단계에서 그것이 과연 설립목표를 다 달성했느냐고 비판할 수도 있지요.

소비자는 여성에서 남성에까지 모두 다 해당되는데 소비자 운동이 왜 여성운동으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이 중산층이나 소시민 등 기반의 폭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됐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성운동이 박애적이고 혜택을 베푸는 식의 운동이었기에 절박감이 없었지요. 그래서 항상 여성운동에 한계가 보였었는데 여성자신의 문제

를 여성자신이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여성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여성운동에 활력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경제문제에 전문적으로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에 피상적으로 보았읍니다만 오늘날 소비자 보호운동이 좀더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점은 있습니다.

소비자운동은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어떻게 소비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야 합니다. 가격문제, 물건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것, 생산된 물건이 인체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 근본적인 부분에까지 관심을 못갖는 소비자운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많이 소비를 하는데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이나 보다 좋은 물건을 어떻게 보다 싸게 사느냐라는 것만 관심을 가졌지 오늘날에 소비패턴이 잘못됐다는 것까지는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요즘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다양한 목소리로 분출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표출 방법에 있어서도 민주적인 방법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겠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정의와 쌍벽을 이루는 것이죠. 평화없는 정의가 없고 정의없는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저더러 가장 좋아하는 말이 무엇이나고 하기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라는 것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전쟁이 없어서 총소리가 안들리고 조용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평화라는 것은 정의와 쌍벽을 이루는 것

이죠. 평화없는 정의가 없고 정의없는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머리 속에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라도 소리만 안나면 안정된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정당한 요구가 다 충족 되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불만이 해소된 상태를 평화로운 상태, 안정된 사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는 각 계층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눌러만 있다가 한꺼번에 욕구를 분출함으로써 거기서 왈가닥 소리가 나거든요. 문제는 그 왈가닥 소리가 나는데서 폭력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든지 폭력은 배격합니다.

그들의 생존권과 결부된 문제들, 근로자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든지 일전의 농민들이 보여준 의사당 앞에서 의 요구들은 여성들이 무슨 지위 향상

을 위해서 외치는 것과는 비교가 안되는 절박한 생존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사실 농촌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농민들의 영농방법의 결함에서 온 문제라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 차원에서 빚어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한 정부 측에서의 적극적인 대책이 있었다면 농민들이 무엇 때문에 그 귀한 시간을 제 돈 들여서 올라왔겠어요.

어쨌든 각 이익집단이 자기들의 욕구를 분출하는 것은 민주주의식의 발로라고 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은 정리가 안되고 훈련이 안 된 과정에서 분출된 것이기 때문에 왈가닥소리가 크게 나는 것이죠. 하나 그 분출된 욕구가 항상 그렇게 불상사로 끝나는 것은, 아직도 이 정부가 민주주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나 준비도 안돼 있고 또 그 방법도 모른다는데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부가 민주정치를 하고 있지 않는데 첫째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민주적인 의사를 정말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훈련과 경험이 아직 쌓여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점차 경험을 쌓고서 훈련을 거쳐가면 정리되리라 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국민의 의사가 표명되었으면 하는 것이 소망이지요.

또한 그런 욕구들이 국회를 통해서 수렴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국회가 아직도 과거의 정치패턴을 벗어나지 못해서 소위 말하는 당리당략이란 것도 아직 남아 있어 그러한 욕구들을 수렴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엄격한 의미로 보면, 모든 의사가 자기 지구당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자기들의 대변자인 국회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화 기자